



안녕하세요. 김안나 수녀입니다. 저는 2남 4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태어난지 한달만에 작은 시골 마을인 비아공소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명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신앙심 깊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성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까리따스 수녀회 피정을 다니던 중에 저희 언니에게 맞는 수녀회를 찾아주려고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녀회 입구에서부터 로비와 성당의 분위기에 압도되었고 수녀님들의 밝은 모습과 따뜻한 환대가 참 좋았습니다. 1991년에 저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언니는 까리따스 수녀회에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녀회를 방문했던 날 당시 지부장 수녀님이셨던 문말린 수녀님께서 저에게 “**왜 수녀원에 오고 싶냐?**” 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요.**” 라고 고백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첫 파견으로 신봉동 본당과 용머리 본당을 거쳐 1998년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논산 씨튼 영성의 집에 2001년과 2014년 두 번의 파견을 받았는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깊게 성장해 나간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서울 마더씨튼 집에서 어르신 수녀님들과 함께했던 모든 여정들이 영적,육적으로 저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양성기 때부터 말린 수녀님은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안나! 너는 어머니 반만 닮아가면 성인 수녀가 될 것이다.”**

많이 부족하지만 본원 주방장으로 지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체성사의 삶을 나누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저의 삶의 역사에 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성요셉 양아버지, 김 필립보 우리 아버지이시고, 마리아 어머니, 씨튼 어머니, 공 심포로사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수도회 모든 수녀님들과 모든 은인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입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지금껏 이끌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참 신앙 모시고 잘 살아라**” 라고 늘 말씀하시는 심포로사 어머니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마지막날까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되이 걸어갈 수 은총을 청해봅니다.

**“ 내가 있다는 놀라움, 당신 하신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감사합니다.**

**( 시편 139, 14 : 공동번역)**





Hello. My name is Sr. Kim, Anna. I was born as the fifth of 6 siblings, consisting of two sons and four daughters. I was baptized as an infant a month after my birth at the station called "Bia Gongso" which means "remote Catholic Church." At that time, my Christian name was Anna, which became my real name.

Thanks to influence from my devout parents I was interested in a vocation since childhood. While attending vocation retreats organized by Caritas Sisters, I took part in a retreat held at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seeking an order appropriate for my elder sister. I was overwhelmed by the atmosphere of the entrance lobby and the chapel, and I was happy to see the sisters' bright appearance and warm hospitality. After all,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in 1991, and my elder sister entered the Caritas Sisters. When I first visited the Sisters of Charity, Sr Marlene Mondalek, the Provincial Superior, asked me, "Why do you wish to join us?" I replied, "God's love is so very good." I recall that moment as a good memory.



After finishing my first pastoral ministries at ShinBong-Dong Parish church and then YongMory Parish church, I professed final vows in 1998. I was missioned to NonSan Spirituality Center in 2001 and 2014. It was a gracefilled period for me to experience profound growth in my spirituality through encounters with various people. Furthermore, I lived with senior sisters at Seoul Mother Seton House for three years in 2017, which was a valuable time to grow spiritually and physically.



Sister Marlene told me often from the period of formation, "Anna, you will be a saint sister if you resemble as much as half of the Mother." I hope to live well the sacramental life of Jesus at my place of work as the director of the Provincial House, even though I am still lacking.

There are three fathers and mothers, respectively—first, God our Father, Saint Joseph, a foster father, and Phillip Kim, my birth father. Second, Mother Mary, Mother Seton, and Symphorosa Gong, my birth mother. How blessed I am as I live with such good parents! I feel grateful to all benefactors and sisters of our Sisters of Charity. Thanks to God for inviting me, who is humble, and leading me with your love. Let me ask God to grant a grace in which I might walk humbly for the glory of God until the end of my life while remembering my mother's request of "Live well with your Genuine Bridegroom".

"I will praise thee, for thou dost fill me with awe; wonderful thou art, and wonderful thy works."

(Psalms 139,14)

